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을 보는 방법 성경: 요한복음 14장 8-12절

Tag: 4th-dimension spirituality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14:8-12)

오늘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셨다.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너희에게 말하고 설명하였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구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제자들이 단어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단어 그대로, 문장 그대로를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일까?

4차원의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4차원의 영성도 일종의 감각이다.

영어공부는 언어감이 필요하고, 수학공부는 논리감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영적감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음악천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천재가 되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천재급이고, 어떤 사람은 영재급이고, 어떤 사람은 수재급이고, 어떤 사람은 우등 급이고, 어떤 사람은 양호한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실마리는 있는 수준이다. 다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우수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갈망은 있다. 보잘 것 없는 재능일지라도, 다 영어 유창하게 말하기 원하고, 수학문제 일타강사처럼 속 시원히 풀어내기 원하고, 노래방에서는 100점 나오기 원한다.

4차원의 영성이란 3차원을 완전히 초월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갈망에 대한 해답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영역에 관한 것이다.

4차원의 영성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물론 예수님이 가장 훌륭함), 야살의 책에 보면 에녹이 그랬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속에 거하는 것을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설교를 듣기 원했지만, 에녹은 설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 나더니 결국에는 승천하고 말았다.

우리는 결코 에녹 같지는 않지만, 에녹과 같은 재능을 부러워한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한다면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이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생각이 튀어 나오기도 한다. 사람 얼굴 다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자라나는 듯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의지가 무르익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생각은 정리된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경부터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 당시 우리집에 있던 성경책은 이리 저리 굴러 다니다 겉 표지가 낡아 사라지고 성경전서라는 얇은 첫 페이지가 절반은 찢겨지고 창세기 부분은 모서리가 말려서 뭉쳐져 있었다.

당시의 내 실력으로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한두 페이지 읽다가 포기하기 일수였다.

그러다 4학년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린이용으로 그림까지 곁들여 출판된 책을 교회에서 선물 받게 되고, 그것을 여러번 읽다가 그 책도 너덜너덜 해 졌다.

그러다 5학년쯤에는 새번역 신약성경을 선물 받았다. 책이 너무 예쁘고 읽기 쉬워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우연히 찬송가에서 교독문 부분을 차분하게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편 1편이 여러차례 읽혀지게 되었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의 뜻들이 깨달아지면서 흥이 올랐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애들을 모두 모았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려 줄테니 다 앉으라고 했다.

애들을 마루 바닥에 앉혀놓고 신나게 시편 1편을 읽어 주고 해설해 주었다. 약 15분 정도 지나니 밀천이 바닥났다.

그래도 애들은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즐겼다. 그런데 나는 이미 밀천이 바닥난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더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겨워져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때 이후로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주로 삼강오륜에 대한 한문공부를 하면서부터 붓글씨를 쓰게 되었는데, 아예 삼강오륜에 대한 주석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에 누군가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었는데, 그 한권 다 썼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심어 주셨던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천사-대리)**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는 의지를 도와 주시고 실행하는 힘이 생기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특히 그 사람의 재능에 해당하는 감동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방황하지 말라. 이단에 빠진다.

오늘 여러분은 8-9절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공감이가는가?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공감이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한
영적감각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없다. 오직
이단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 내려고 거짓되고 망령된 교리를 만든다.

(설혹 빌립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 빌립은 후에 아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다. 사도행전8장)

빌립은 수학과 논리가 뛰어난 사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산해 내는 사람.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5병2어 기적에 앞서 떡을 어디에서 구할지를 빌립에게
물으셨다. 그러자 빌립은 방법은 없으며, 떡값마저 어마어마 하다고
예수님께 답을 내놓은 제자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산이 빠른 빌립은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예수님께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방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함.

아마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으로 믿음.

그러나 빌립은 전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믿음이라는 가장 적절하고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3차원적인 방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가지 종류의 믿음을 제시하시고, 첫 번째 믿음이 힘들면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하심. (11절)

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2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첫 번째 믿음은 영적인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방법이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이제부터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셈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고백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존재형태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으로서 3차원적인 이해가 어려웠다. 빌립의 요구는 4차원적인 존재를 3차원적으로 변환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4차원의 세계가 어디 안드로메다 넘어 어디쯤으로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을 계속 바라 보았다. 3차원의 공간은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의 시야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 3차원적으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야는 우주 안에서 극소공간으로 한정된 시야이다. 심지어 우리는 원자의 구조도 육안이든지 현미경으로라도 눈으로 볼 수 없다.

4차원이란 3차원과 중첩되어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다.

이미 우리는 4차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항상 4차원적

존재이다. 4차원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이 힘들면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보았으니, 그 기적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하셨다. 5병2어의 기적은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가능할 것이다.

빌립과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증언을 믿으면 된다. 성경의 증언과 설교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삼위일체에 관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복음이다.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이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인플루언서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다른데 있다. 오늘 네가 물한잔의 도움이라도 베풀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베푸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셨다. 사기꾼에게 속아 너의 전 재산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 하겠느냐? 네가 한낱 네 눈에 보이는 교주에게 인정 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느냐? 그 많은 헌신이 헌신짝 되리라. 차라리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헌신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고, 이보다 더 훌륭한 상급은 없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아,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만족이 되겠느냐? 네 스스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인정받았다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사람들의 칭찬은 바닷물로 해갈함 받으려는 것과 같다.

너 스스로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천만인이 너를 인정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며 만족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실 만큼 너의 예배의 질을 높이고, 말씀 경청의 질을 높이고,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안에 재능을 발견하거든 더 큰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도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고, 네 스스로가 인정받고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교리교육 4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28절

성경: 창세기 1장

Tag: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1:28)